

“나에게 불성있다” 믿고 정진

인간교육과 일체중생실유불성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도덕적 위기의 사회라고 한다. 감히 그럴만도 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점차로 악이 득세하고 선이 백을 못추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도덕적 사회는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선이 득세하고 악이 꼬리를 감추어야 하는데,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이와는 반대 현상이 눈에 띄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사회생활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공존 속에서 선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사회라 하며, 악이 지배하는 사회를 도덕적 위기 사회라고 한다. 물론 완전히 선이 지배하는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완전히 악이 지배하는 사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정의보다 불의가, 성실보다 불성실이, 정직보다 거짓이, 사랑보다 미움이, 봉사보다 이기가, 근검보다 사치가 관치는 사회로 치달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사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이미 경고하고 계셨다. 그래서 오계(五戒), 또는 보살심성계를 제가인의 생활규범으로 제시하셨던 것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살생이 점차로 많아지며, 남의 물건

김중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6>



그림 · 이준석

“겨울나뭇가지 속에
꽃과 잎이 없어도
봄이 되면
꽃피고 잎돋네”

을 훑치게 되고, 성이 문란해지며,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사탕발림 말이 많아지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욕설에 익숙하며,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

도덕적 위기에서 인간을 구출하려면 점차로 매몰되어 가는 ‘사람됨’을 회복케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고도산업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도덕적 위기의 양상은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교육의 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인간교육일 것이다. 특히 인간교육의 필요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성 발달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이외에는 예측을 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유전공학, 인공위성 등 해당분야는 들어도 보지 못한 개념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을 맺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인간성이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과 발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다. 과학기술은 무성하게 발달하는데 인간성 발달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 발달된 과학기술은 인간을 멸망시킬 가능성마저 있다.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여 건물이 좋아지고, 상점의 물건이 좋아지고, 거리가 좋

아지고, 교통이 편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30년, 40년 전에 비하여 인간이 더 성실해지고, 더 정직해졌으며, 더 봉사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역행의 길을 걷고는 있지 않은지?

예를 유전공학에서 들어보자. 2년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바 있는 ‘수퍼 송아지’에 관한 것이다. 보통 송아지의 출생 직후의 몸무게는 45kg인데 수퍼 송아지는 60kg이며, 보통 송아지가 커서 생산하는 우유는 18kg인데 수퍼 송아지가 커면 35kg의 우유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퍼 송아지 복제를 1995년에는 500마리, 1996년에는 1,000마리, 1997년에는 5,000마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현재는 복제란(複製卵)의 체내 주입에 의한 탄생이지만 좀더 기술이 발달하면 체외 탄생이 가능할 것이다.

재 동물에 있어서는 완전히 성공하였는데 만일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실로 가공할 일이다. 세계적 천재인 아인슈타인의 정자와 절세의 미인 마리린 폰로의 난자를 인공수정시켜 복제인간을 수 없이 많이 만들어내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한 과학기술에 대해 올바른 이정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됨됨이의 향상이 보다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둘째, 물질 위주의 사상이a 도도하게 흐

“과학·물질·향락만능이 똘을 부른다”
오계·십선계 ‘사람됨됨이’ 회복 규범

르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도 산업사회를 형성하였으며 고도 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는 보다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 위주의 사상을 낳게 하였으니 물질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즉 물질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성은 일그러지게 되었다.

이러하여 사람의 평가척도가 물질로 대체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류 국가, 이류 국가 등의 분류기준은 국민 1인당 소득으로 되어 있고 직업의 위계순위도 그 직업의 수입에 의하여 결정되며 심지어 ‘효도’도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다. 재산이 없는 노부모에게는 효자, 효녀, 효부가 극히 드무니 효도가 아니라 가히 ‘돈도(?)’라고 할만 하다.

셋째, 관능적 향락을 즐기는 사회가 되고 있다.

물질 위주의 사상은 관능적 향락을 즐기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관능적 향락은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에서 불쾌한 자극을 피하고 쾌감을 주는 자극을 추구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쾌감의 원천은 많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불건전하고 가치적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담배, 술, 마약, 성행위,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관능적인 향락을 생각할 때 사회의 앞날이 적지 우려된다. 참된 삶, 삶의 뜻, 삶의 보람을 찾음을 외면하고 달콤한 ‘꿀’만 받아 먹으려고 아귀다툼이다.

부처님께서는 불설비유경(佛說譬喻經)에서 관능적 쾌락 추구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놀고 있었는데 악한 코끼리에게 갑자기 쫓기는 바가 되어 무서워서 달아났으나 숨을 곳이 없었다. 마침 낡은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 걸려 있는 나무덩굴을 타고 우물 밑으로 내려가서 우물 속에 몸을 숨겼다. 우물 위를 울러다 보니 거기는 흰쥐와 검정쥐 두 마리가 그 사람이 매달린 나무덩굴을 갈아 먹고 있었으며 옆을 보니 독사 네 마리가 그 사람을 물려고 하고 있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구렁이, 독사에 물릴까 두려워 하고 매달린 나무 덩굴이 끊어질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때 나무 뿌리에서 꿀물이 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입을 벌리고 받아 먹는데 얼중하였다.

비유에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신의 모습이며 코끼리는 무상(無常)의 태동이며 우물 속은 인간 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 즉 세월의 흐름을 뜻하며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 몸의 구성요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을 말하고 매달리고 있는 나무 덩굴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렁이는 죽음을 상

징하며 꿀은 관능적 향락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도덕적 위기의 사회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길잡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의 부처님 가르침을 철저히 믿고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불성이 있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불교는 믿음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종교이다. 겨울 나뭇가지를 쫓겨 아무리 떨어다 보아도 꽃도 없고 잎도 없다. 그러나 봄이 되면 잎이 돌아 나오고 꽃이 핀다. 겨울 나뭇가지 속에 꽃과 잎의 징조가 없다고 하여 나무에 잎이 있고 꽃이 있음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圓覺經)에서 “금광을 녹임으로써 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일단 금이 된 후에는 금의 본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불자들은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용처(日用處)에 불성에 따라 행동하며, 수행시에 불성을 찾아 정진할 때 비로소 이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 사람됨됨이 넘치는 사회로 이끄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시뮬백적하거나 전란(戰亂)이나 투쟁으로 끔찍히 흐트러진 현상을 “아수라장 같다” 또는 줄여서 “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 또는 수라장이란 아수라(阿修羅)의 심술이 만들어 내는 피해 현상을 말한다. 아수라란 천(天), 인(人), 아수라, 아귀(餓鬼), 축생(畜生), 지옥(地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아수라는 화를 잘내고 도전적이어서 전신(戰神)이라고도 한다.

아수라는 전생에 바라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몹시 우매하고 욕심이 많은 바라문이었다. 어느날 이 바라문은 광야에서 많은 수레에 물을 싣고 다니며 남에게 보시하던 중 불타고 있는 탑을 보았다. 못된 무리들이 불탑(佛塔)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다. 바라문은 물수레를 모두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데 성공

아수라장

아수라의 심술이 만든 피해현상 전란이나 투쟁으로 끔찍한 모습

했다. 그리고 서원했다.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욕심(慾心)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

어리석은 그 바라문은 좋은 일을 하고도 좋게 회향하지 못하여 결국 아수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수라는 불같이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고 우둔한 축생이 된 것이다.

아수라의 거처는 수미산(須彌山) 아래 큰 바다 밑이다. 아수라들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8만 4천 유순(由旬), 입 크기만 1천 유순이라 한다.

인도인들은 정의의 상징인 하늘(天)과 악의 대표인 아수라의 싸움에서 수라가 이기면 재물이 많고 하늘이 이기면 풍요가 온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아수라와 하늘의 싸움에서 하늘이 이기면 인간세상은 평화롭고 아수라가 이기면 괴롭다. 그런데 이 두 편이 싸우는 동안 인간이 나쁜짓을 많이하면 아수라의 힘이 강해지고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고 한다. 반대로 지상에 정법(正法)이 널리 퍼지면 하늘이 강해지고 아수라는 약해진다. 지금 우리사회는 하늘과 아수라중 누가 힘이 더 썩까.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담법석'

감·로·심·장·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안면기형·안과(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 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톱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시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경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 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병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보아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시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감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목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 수상하였음